

중1-1
국어
천재(노)

2026 중1-1 국어 천재(노) | 4(1) 먹고 싶다, 수박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작품 「먹고 싶다, 수박」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돼.

1. 글에 등장하는 다양한 갈등 유형에 대한 문제
2.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방식에 관한 문제
3. 작품에 드러나는 반어적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



글을 읽으면서 제가 다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맞아. 정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글이기 때문에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떤 갈등이 눈에 띄었는지 이야기해 볼까?

먼저 외적 갈등을 살펴보면, 화장실에서 친구들끼리 수박을 몰래 먹자는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께 말하고 다 같이 나눠 먹자는 '나'의 외적 갈등을 찾아볼 수 있지. 또 수박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자고 하는 지원이와, 그게 양심에 걸려서 선뜻 그러지 못하는 '나'의 외적 갈등도 볼 수 있었던단다.

'나'의 내적 갈등도 여러 차례 나오지? 수박 문제에서 빠져야 할지, 책임을 넘기고 자신도 떠나야 할지 등... 장면을 제시하고 갈등의 유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자세하게 확인해 두렴!



진짜 많이도 싸우더라고요! 그 덕분에 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익힌 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에게」에서도 연두와 엄마의 갈등, 녹두와 엄마의 갈등이 나오는 장면을 바로 파악했거든요! 엄마와 연두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도 잘 정리했거든요~

「내일은 내일에게」에서 연두와 엄마의 갈등이 편지를 통해 해소되는 것까지 잘 확인했다는 거지? 기특하네!

그럼 혹시 「먹고 싶다, 수박」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도 잘 파악했니?



중1-1
국어
천재(노)

2026 중1-1 국어 천재(노) | 4(1) 먹고 싶다, 수박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발단]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일어난 그 일**(수박을 둘러싼 친구들 사이의 갈등)은 마치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했다.]([: ‘나’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 이 부분에 담긴 의미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당황스러웠음을 의미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나”의 꿈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여유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게 문제**(사건이 일어난 배경 - 여유 시간에 돌아다니다 수박을 발견함.)였다. 줄넘기 평가를 하는 날이었다.

“적당한 데서 연습하고들 있어. 부르면 짹싸게 오고.”

노란 선글라스를 낀 체육 쌤의 말이었다. 아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세영, 지원, 은비, 인정, 영주와 함께 뭉쳐서 갔다. [우리는 **자타**(문맥에 맞는 다른 말로 바꾸는 문제로, ‘모두’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가 공인하는 육인방이다. **콩 한 개도 여섯 쪽으로 나눠서 먹을 수 있다고 서로 믿는 사이**(이를 나타내는 자사성어로 ‘수어지고(水魚之交)’나 ‘지기지우(知己之友)’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다.]([: ‘나’가 생각하는 친구들의 관계)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리 잡은 곳이 초회대 위였다. 그곳은 시멘트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맨땅에서 줄을 넘는 것보다 나았다. 하지만 줄넘기는 뒤틀전이었다. 넘는 둥 마는 둥, 별 영양가 없는 수다로 시간을 보냈다. 체육 쌤이 본다면

“어휴, 저것들!”

하고 속을 박박 긁겠지만. 인정이는 아예 줄넘기를 저만치 집어 던지고, 바닥에 퍼질러 앉았고, 은비와 영주는 줄넘기 한 개로 서로 몸을 묶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세영이가 외쳤다.

▶ ‘나’와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냄.

“어머, 어머! 애들아, **저것**(초회대 옆에 있는 수박) 좀 봐.”

눈들이 한꺼번에 세영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다.

“보여? 애들아, 보이지? 수박 말이야.”

진짜로 있었다. 수박이었다. **초회대 옆, 비탈진 잔디밭, 늙은 겹벚꽃 나무 아래, 수박이 있었다.**(앞으로의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인 수박의 등장) 단 한 개. 수박 포기도 딱 하나였다. 오리발처럼 갈라진 길쭉한 초록 이파리들은 그닥 싱싱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박은, 생각보다 컸다!

“와, 크다! 인정이 머리보다 크겠다.”

지원이가 인정이 머리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녹색 덩어리에 선명하게 죽죽 그어진 질푸른 선들. 수박은 튼튼해 보였다. 손가락으로 튕기면, 퐁! 하고 소리를 낼 것 같다. 나는 수박을 손가락으로 튕겨 보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솟아나자, 참기 어려웠다.

▶ ‘나’와 친구들이 우연히 수박을 발견함.

“아, 저거 우리 따 먹으면 안 될까? 수박이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왜 그동안 못 봤을까?”(크고 싱싱한 수박을 보고 들뜸.)

[내가 이상한 흥분에 휩싸여 마구 말을 쏟아 내고 있을 때, **벌처럼 웅 하고**(지원이의 재빠른 행동을 비유를 통해 드러냄. ‘재빠르고 능숙하게 수박을 따는 행동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박에게로 날아

간 인간이 있었다. 지원이었다.

“먹고 싶으면 따지 뭐.”

아아, 그 아무도 말릴 새가 없었다. 마치 오랜 세월 수박 농사를 지어 온 농부라도 되는 양, (능숙하게 수박을 따는 지원이의 행동을 비유를 통해 드러냄. **비유가 사용된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주 능숙한 솜씨로 지원이는 수박을 딱 따서, 가슴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 : 지원이의 충동적인 성격)

“야, 너!”

거의 비명에 가까운 짧은 소리가 모두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순간 정적. 입을 벌린 채 아이들은 얼음이 되었다. (지원이의 성급한 행동에 모두 놀라고 당황함.) 지원이 표정이 가장 볼 만했다. 수박을 가슴에 안고 우는 듯 웃는 듯 두려운 듯 오묘한 표정.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음.)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지원이었다. (지원이의 성격을 직접 제시함.)

▶ 지원이가 갑작스럽게 수박을 따 버림.

“왜에!”

지원이는 친구들을 올려다보며 애절한 가락으로 호소하듯 내뿜었다. 지원이의 호소에 누구도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원이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음.) 갑자기 근심에 휩싸인 지원이가 일부러 울음 섞인 소리를 내면서 다시 애원조로 말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원이가 애절하게 친구들의 동의를 구함.)

“수박 먹고 싶지 않아? 너희들.” (지원이의 변명)

“먹고 싶긴 하지…….”

인정이가 대답했다. 나도 먹고 싶다고 말을 보태려는데, 은비가 먼저 말했다.

[“난 안 먹을래. 그, 리, 고.”

글자를 끊어서 또박또박 발음한 뒤, (은비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자 함.) 은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덧붙였다.

“나는 빠지겠어. 이 사건은 나와 무관한 거야. 난 결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어.” (은비가 자신은 지원이가 수박을 따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은비는 말을 하는 중에도 걸음을 옮겨, 마침내 조희대에서 바깥으로 나가 버렸다. [([] : 이성적이고 단호한 은비의 성격이 드러남. **은비의 이성적이며 결단력 있는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던 영주도 은비를 따라갔다. (은비와 같은 의사를 드러내는 영주) [수박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세영이는 은비를 보다가 지원이를 보다가 허둥대며 ‘어떡해, 어떡해.’를 연발하더니 엉뚱하게도 줄넘기를 들고 줄을 넘기 시작했다. [([] :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세영)

▶ 수박을 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며 먼저 교실로 향하는 은비

멀리서 시끌시끌 아이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박을 따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들킬 위기)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당연히 지원이었다. 수박을 안은 채 엉거주춤 선 지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나는 지원이를 구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눈에 띄는 대로, 지원이의 신발주머니를 들고 달려갔다.

“얼른 넣어!”

신발주머니의 주둥이를 벌리고 내가 말했다. [([] : 지원이를 배려하고 의리 있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는 수박을 딸 때처럼, 재빠른 동작으로 수박을 집어넣었다. 팔을 두어 번 흔들며 보던 지원이는

“휴, 살았다.”

하고 숨을 쉰 내쉬곤 멀리서 다가오는 아이들을 힐끔 바라보았다. 신발주머니 깊이가 알아서 수박 등이 손등만큼 내보인다.

“야, 보인다. 수박이 너무 커.”

수박이 큰 것이 결코 탓 될 일도 아니건만, 지원이는 수박이 큰 탓을 하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수박이 크면 좋겠지만, 지금은 수박이 커서 남에게 들킬까 봐 걱정됨.) 사방을 휘휘 둘러보다가 조희대 난간에 걸려 있던 체육복 점퍼를 벗겨서 신발주머니를 감쌌다.

“야, 그거 내 건데.”

세영이가 외쳤지만, 지원이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지원이가 세영이의 항의를 무시함.) **줄지에 내가 수박을 끌어안게 되었다.** (열떨결에 ‘나’가 수박을 책임지게 됨.) 다른 사람들이 보면야 체육복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겠지만.

▶ ‘나’와 친구들은 수박을 신발주머니에 숨김.

[전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체육 시간은 끝이 나 버렸다. 나와 지원이, 세영이와 인정이는 잘 감춘 수박을 끌어안고 교실로 들어갔다. 다른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가운데에 두고, 세 아이들이 보호하면서 걸었다. **우리 넷의 눈빛 교환은 은밀했다.** (넷만이 수박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마음. 공범자로서의 마음) 다른 사람들 몰래 우리만의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꽤 짜릿한 맛이 있었다. 더구나 뭔가 조금은 찝찝한 일, 곧 결코 선한 일이 아니며 들통이 난다면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한 비밀. 공범자로서 서로를 지켜 줘야 한다는 희한한 사명감까지 생기는 그것. 누가 심어 가꾼 수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공의 장소에 심어져 있었으므로 누구든 발견한 사람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수박을 훔친 일에 대한 ‘나’의 합리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이 건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다.**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 수박은 너무나 잘 가꿔져 있었기 때문이다. 수박 줄기 주변은 잡초를 제거하면서 흙을 돋워 놓는 등, 사람의 손길이 확인했다. 당연히 수박이 저절로 나서 자랐다면 그렇게 상품 가치가 있을 정도로 되진 못했을 것이다. **정성을 들어서 가꾼 사람이 있는 게 분명했다.** (수박을 훔친 것만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편함.) 마음이 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 (수박을 정성 들여 가꾼 주인이 있음.)이었다. 서로 입 밖에 내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세 친구도 **그렇게** (주인이 있는 수박을 몰래 딴 것은 잘못임.) 생각할 게 틀림없었다. 눈빛만 봐도 안다.

▶ 주인이 있는 수박을 몰래 딴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함.

[교실에 들어가서도 우린 한 덩어리로 뭉쳐서 앉았다.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눠야 했다. 수박이 든 신발주머니는 책상 밑에 넣었다. 그리고 우리 넷은 **머리를 가까이 모았다.** (관용 표현의 의미를 묻거나, 빈칸을 뚫어 적절한 관용 표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수박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 나는 책상 하나 건너에 앉은 은비를 보았다. **은비는 평온한 얼굴로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은비는 수박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여 마음이 편함.) 은비 옆에 앉은 영주와는 눈이 마주쳤다. **영주는 자주자주 우리 쪽을 보고 있었던 거다. 영주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다.** (영주는 친구들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 나는 은비의 평온한 옆얼굴을 보면서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부러움과 서운함.** (‘나’가 은비에게 느끼는 감정. ‘나’가 은비에게 느끼는 감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은비와 나는 중학교에 들어와 2년 연속 같은 반이 되었다. 아홉 개 반 중에서 같은 반이 될 확률은 높지 않았다. 보통 서너 명에 그친다. 더구나 지난해의 절친이 다시 같은 반이 될 확률은 정말 낮았다. 은비와 난 1학년 때 절친이었다. 물론 지금은 더욱더 절친이다. 그런 은비가 지금 저렇게 무심하게 나를 돌아보지조차 않고 있다. **절친이란, 무슨 일이든 같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절친’에 대한 ‘나’의 생각 → ‘나’가 은비에게 서운한 까닭)

나는 그런 생각에 서운했다. (은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나’에게 무심해서) 그러나 **부러움이 더 컸다.** (은비는 옳지 않은 일에 손을 떼는 결단성이 있어서) ‘그건 옳지 않아.’라고 서슬 푸르게 손을 딱 떼 버리는 그 결단성. 부러움을 넘어서 그런 결단성을 가진 은비가 절친이라는 것이 은근히 자랑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은비가 빠진 채 수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절친인 은비가 빠진 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서 오는 허전함과 부담감. ‘친한 친구가 빠진 서운함과 은비 없이 수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나’는 수박 문제에서 빠진 은비에게 부러움과 서운함을 느낌.

지원이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듣고 있어? 왜 대답을 안 해?”

지원이, 인정이, 세영이가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으응, 뭐?”

“기집애. 고새 판생각을 하고 있냐? 화장실 가서 먹는 게 어떠냐고, 수박을.(친구들이 제안한 수박 처리 방법)”
지원이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화장실에? ……”

나는 잠깐 대답을 머뭇거렸다.(친구들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음.) 뭔가 불현듯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가꾼 수박을 판 일차적인 잘못을 조금이나마 보상하려면 수박의 처리 문제는 공명정대해야 할 것 같았다. 우
리끼리 숨어서 먹는 것은 잘못에 또 하나의 잘못을 더 얹는 게 아닐까.(주인이 있는 수박을 판 잘못에 수박을 몰

래 먹는 잘못을 더하기 싫은 ‘나’의 마음) 나는 말했다.
＜ “아냐, 다 같이 먹자.”(‘나’가 제안한 수박 처리 방법)

“뭐?”

지원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영이, 인정이도 마찬가지였다.(‘나’가 의외의 제안을 하여 친구들이 놀람.)

“담임 쌤 오시면 말해서, 애들 다 같이 먹자고.”

모든 수업이 끝났으므로, 담임이 종례를 하기 위해 곧 교실에 올 것이었다.

〔 “미쳤어? 벌점 먹을 거야.”

“엄청 혼날지도 모르고.”

“다른 애들한테 욕먹을걸.” 〕〔]: 친구들이 ‘나’의 제안을 반대하는 이유)

셋이서 한마디씩 지껄었다. 나는 조용조용 차분하게 내 생각을 주장했다.

“담임 쌤이 말이야. ‘허허 자식들, 왜 그랬어? 뭐 어쩌겠냐? 이왕 따 온 수박이니 나눠 먹자. 허허.’ 하고 말
하실 거 같애. 그럼 얼마나 좋아. 우리 지금 이 찝찝한 기분도 다 없어지고,(수박을 마음대로 뺏다는 죄책감을 수박
을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 함.) 친구들하고 다 같이 수박 한 쪽씩 먹고 말이야. 아, 수박이 한 개밖에
안 되니까 모자라면 우린 안 먹어도 되고.(수박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서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 함.) 난 이 방
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어때?”

“찝찝.”

세영이가 침을 입속에서 모아 소리를 내더니 말했다.

〔 “담임 쌤이 그렇게 안 나올 거 같은데. 평소에 하던 태도를 불작시면 말이지. 무조건 벌점 먹는다에 난 한
표!”

“난 크게 혼난다에 한 표! 난 우리 학교 3대 악당을 너무 물렁하게 본단 말이야.” 〕〔]: 학생의 잘못을 엄격히 지
도하는 담임 선생님의 평소 태도를 짐작하게 함.) >(< >: 이 부분에 드러나는 갈등 유형으로, ‘수박을 판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알
릴 것인지에 관한 ‘나’와 친구들의 외적 갈등’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수박 처리 문제로 ‘나’는 지원, 인정, 세영이와 갈등함.

그렇다. 우리 담임은 60여 명에 이르는 교사들 중에 3대 악당으로 꼽힌다. 3대 악당 중에서도 첫손가락
이 틀림없을 거였다.(담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과 비교해도 무척 엄격한 편임.)

〔 “너는 담임 쌤한테 크게 혼나 본 적이 없지? 공부를 잘하니까.”

자주 혼나는 인정이가 말했다. 정말 그렇다. 나는 크게 혼나 본 적이 없다. 〕〔]: ‘나’는 선생님께 혼날 일이 별로
없는 모범생임.) 인정이와 세영이의 극구 반대(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박을 나누어 먹자는 ‘나’의 제안에 반대함.)에 동
참한다는 의미로 지원이도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말 없는 지원이의 그 행동이 더욱 견고한 반대 표
시로 느껴졌다. 난 답답했다. 왜 애들은 뉘우칠 줄을 모를까. 나도 이쯤에서 손을 떼 버릴까.(‘나’의 내적 갈등
- 은비처럼 수박 문제에서 빠져 버릴지 고민함.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유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시 은비를 바라보았다. 초연하고 편안한 모습. 지원이의 우발적인 행동에 은비는 재빠른 판단으로 결단을
하였다.(‘나’가 부러워하는 은비의 모습과 태도) 〕 하지만 난 어떨까. 우유부단한 나.(‘나’의 성격을 직접 제시함.)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알량한 우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잘못된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가. 〕〔]: 은비와
대조되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자책함.) 아니, 나도 사실 수박을 따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지원이가 뚝 따 버렸을
때, ‘야아.’ 하고 외쳤지만 속으로 슬며시 쾌감도 있었던 걸 희미하게 기억한다.(자신도 지원이처럼 수박을 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 그런데 이제 와서 손을 떼겠다고?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자신에게도 수박 사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들을 설득해 보았다.

“애들아, 그렇게 하자. 담임 쌤이 벌점 먹이면 먹고, 혼내시면 혼나자. 그게 속 편할 거 같애.(잘못을 고백하고 찜찜한 마음을 털어 버리고자 친구들에게 제안함.) 응?”

나는 애절하게 호소하는 눈빛을 세 친구에게 보냈다. 반응은 싸늘했다.(친구들과 ‘나’의 갈등이 심해짐. **해당 장면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유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난 못 해!”

인정이가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고, 지원이는 되려 나를 설득했다.

“너 왜 그래? 그냥 우리끼리 먹어도 될 걸,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응? 화장실 가서 먹자, 응? 다정아.”]([: ‘나’의 의견을 친구들이 반대함.)

▶ ‘나’의 설득에도 친구들의 반대가 계속됨.

지원이가 내 이름 다정이를 정말 다정하게 부르면서 말했다. 난 마음이 흔들렸다. 우유부단한 내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다.(‘나’가 우유부단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함.) 우리 넷이 수박 처리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담임이 불쑥 교실에 나타났다.(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중 담임 선생님의 등장으로 잠시 갈등을 멈춤.) 아이들이 제각각 떠들던 말소리를 낮추며 제자리를 찾아서 앉았다. 담임은 실내를 한 바퀴 빙 둘러본 다음,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별일 있었니?”

“아뇨, 없었어요.”

아이들이 늘 하던 습관처럼 합창을 했다. 담임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각자 위치로.”

담임은 교실을 나갔다. 담임은 바람처럼 교실을 다녀간 것이다.(수박 이야기를 하지 못한 까닭 ①. “**‘나’가 수박 이야기를 하지 못한 까닭을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수박 이야기를 할 틈을 잡을 수 없었다. 아니 담임이 ‘별일 있었니?’ 하고 물었을 때가 수박 이야기를 할 틈이었지만 나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수박 이야기를 하지 못한 까닭 ②) 담임이 ‘별일 있었니?’ 하고 물었을 때, 인정아, 지원이, 세영이가 한꺼번에 나를 쳐다봤었다.(‘나’에게 수박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애원하기 위해서) 그때 만약, ‘내가 수박을 땀어요!’ 하고 말했다면? 그건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일까, 친구들을 악에서 구하는 행위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 ‘나’는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수박에 관해 말하지 못함.

[위기]

어쨌든 담임은 사라졌다.(수박에 대해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놓침.) 담임이 긴 복도를 걸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지원이가 말했다.

“화장실 가자, 수박 먹으러.”

지원이의 목소리는 당당했다.(수박을 몰래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지원이의 태도) 이제 나의 제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지원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 남은 방법은 화장실행뿐이었으니. 그때 은비가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다.

“다정아, 나 먼저 가 있을게. 이따 보자.”

은비가 먼저 가 있을 곳은 음악실이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 방과 후에 합창 연습을 한 시간씩 한다. 은비와 나는 똑같이 알토 파트다. 은비는 수박을 숨겨 놓은 내 책상 밑을 슬쩍 한 번 보고 돌아서서 교실을 나갔다. 하나로 묶인 긴 머리카락을 찰랑이며 걸어가는 은비의 뒷모습이 무척 가벼워 보인다.(수박 처리 문제로 걱정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은비)

▶ 화장실에서 수박을 먹자던 세영이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함.

은비가 나간 뒤 돌발 사태가 벌어졌다. 갑자기 세영이가 수박을 덮은 자기 체육복을 들어 올린 것이다. 아직 교실에는 아이들이 여럿 남아 있는데도 말이다. 수박이 담긴 지원이의 신발주머니는 책상 밑에 있었으므로 물

론 아이들에게 들키진 않았다.

“애들아, 미안. 나 깜빡했어. 얼른 가 봐야 해.”(세영이가 수박 문제에서 빠지고자 함.) 늦으면 엄마한테 죽는당. 우리 가족 오늘 외할머니네 가결랑, 생신이라서. 정말 미안, 미안. 나 갈게.”

말을 하면서 교실을 나가던 세영이. 그래서 ‘나 갈게.’라는 말은, 복도에서 들려왔다. 엄청 바쁘고 급하다는 것이 그대로 행동에서 묻어났다. 세영이를 아무도 잡지 못했다. 아니 잡을 생각도 못 했다는 게 맞는 말이다. 남은 인정이와 지원이, 나는 서로 멀뚱히 얼굴을 쳐다보았다. 세영이 다음은 인정이었다. **인정이가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말했다.**(수박 문제를 떠넘기고 가는 것이 민망하고 미안함.)

“저기, 있잖아. 나도 사실, 얼른 가야 되거든.”(인정이도 수박 문제에서 빠지고자 함.) 수박을 먹고 싶기는 하지만……. 나, 그냥 갈게. 미안해. 나 간다.”

인정이도 가방을 둘러메고 교실을 나갔다. 지원이와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지원이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나도 가야 되는 건가? 수박을 딴 사람은 지원이니까, 지원이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세영이도 인정이도 대놓고 그런 말은 없었지만, ‘미안해.’라는 말이 ‘지원이 네 책임이야.’라는 말과 동의어로 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지원아, 미안하다.’ 하고 가 버리면 그만 아닌가.]([]: ‘나’의 내적 갈등 - 자신도 수박 문제에서 빠져야 하는지 고민함.)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줄지어 일어나는 통**(‘나’의 내적 갈등)에 말을 못 하고 내가 우물거리고 있을 때, 지원이가 먼저 말했다.

▶ 세영이와 인정이가 집에 가 버림.

“저, 다정아, 나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수박.”(지원이도 수박 문제에서 빠지려고 함.) 나 신발주머니 가져가야 되는데.”

정말 뜻밖의 말이었다. 지원이의 말을 나는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다.(수박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지원이가 수박 문제에서 빠지려고 하므로. 이와 같이 생각한 까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박을 딴 지원이가 나서서 수박을 처리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무, 무슨 말이야? 너도 간다고? 수박은 어떡하고.”

“나도 집에 가야 되거든, 빨리. 네가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이 수박.”(지원이가 수박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고 있음.)

“나 혼자?”

“응, 다정아, 난 널 믿어. 헤헤. 넌 훌륭한 친구잖아. 공부도 잘하구.”

지원이가 방글방글 웃는다. 나는 **갑자기 이상하게 전개된 사태**(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지원이 대신 자신이 수박을 떠맡게 된 상황)가 황당했지만, 지원이의 방실거리는 웃음은 너무 예뻐다. 마법에 홀리듯 나는 지원이의 웃음에 매료되었다. **다른 이의 영혼을 몸에 실은 무당이 그 영혼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듯**(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탈결에.) 내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수박 처리를 떠맡기로 함.)

[나는 말을 하는 내 입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와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도 결코 내 것이 아니었다. 처음 듣는 듯한 낯선 목소리였다.]([]: ‘나’의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님.) 그러나 분명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내 가방에 넣어.”

나는 내 가방에 있던 책을 꺼내, 책상 서랍 속에 넣고, 가방 주둥이를 짹 벌렸다. 지원이는 신발주머니의 수박을 짹째 움켜쥐었다. 나는 재빨리 가방의 지퍼를 닫았다. 지원이가 해맑게 웃으며 내 어깨를 톡톡 쳤다.

“정말 정말 훌륭한 친구야, 다정이는.”(자신의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고 입에 발린 칭찬을 함.)

[“걱정 마. 잘됐지 뭐. 내가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

나는 술술 말했다.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건 분명 내 목소리였다. 아주 익숙했다. 나는 귀에 익은 내 목소리를 되찾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적당한 수박 처리 방법을 떠올리고 마음이 편안해짐.)

▶ 지원이마저 집에 가겠다고 하여 ‘나’가 수박을 맡음.

‘그래, 집에 가져가서 엄마랑 아빠랑 먹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자, 기분이 썩 유쾌해졌다. 지원이와 나는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지원이는 내 가방을 두 손으로 살살 쓰다듬었다.

“오동통통 수박. 아, 먹고 싶영.”

혀짹배기 소리까지 해 가면서 지원이는 자꾸만 가방을 만져 댔다.(지원이가 수박에 집착함. 수박에 대한 지원이의 집착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지원이의 행동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작은 소리로 주의를 줬다.

“그만 만져. 누가 본단 말이야.”(다른 친구들이 수박을 알아챌까 봐 걱정스러움.)

“헤에, 보긴 누가 봐. 봐도 누가 알아. 이렇게 쏘옥 들어가 있는데, 가방 속에 말이야. 아, 맛있겠당.”

지원이는 옆에서 걷다가 아예 내 뒤로 돌아가서 가방을 만지면서 걸어왔다.(지원이가 계속 수박에 집착함.) 나는 걸음을 딱 멈췄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 음악실이 있는 별관으로 가는 길과 교문 쪽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 화단 앞에 섰을 때였다. 이리저리 다니는 아이들이 꽤 많은 곳이다.

“진짜 그만해. 들킨다구.”(지원이의 행동 때문에 수박을 들킬까 봐 걱정되고 부담스러움.)

“들किन 뭘.”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내가 한 두어 번 주의를 주면, 곧 하던 행위를 멈추는 게 보통인데 오늘 지원이는 뜻밖이었다. 지나칠 정도로 수박에 집착하는 모습이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컸는데, 그것이 잘 해결된 것에 대한 감정이 넘친 게 아닐까,**(지원이의 행동에 대한 ‘나’의 추측)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다.

“고마워서 그래?”

“뭐라고?”(지원이는 자기 대신 수박 문제를 떠맡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음.)

지원이는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나는 나만의 생각을 불쑥 말했으므로, 지원이에게는 뜬금없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말을 수정했다.

“내가 수박 문제를 해결하니까, 고맙냐고.”

“응, 그렇지 뭐. 그래, 고맙다고 해야 되나? **너는 수박이 생겼는데, 나한테 안 고맙나? 이거 말이야.**(수박 처리를 대신 떠맡은 것을 수박이 생긴 것이라고 하며 ‘나’가 자신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함.)”

▶ ‘나’의 가방에 수박을 옮기자 지원이가 수박에 집착함.

[절정]

지원이는 또 가방을 건드렸다. 아주 수박의 선을 따라 두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계속 수박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 둘이 그러고 있을 때, **같은 반 친구인 민아가 다가왔다.**(새로운 인물의 등장.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는 민아의 역할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뭐해? 다정이 가방에 뭐 있어? 먹는 거지?”

“아…… 아니.”

내가 약간 말을 더듬었다. 얼굴에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빛도 나타났으리라.(‘나’는 거짓말을 잘하지 못함.) **민아가 그걸 놓칠 리가 없다.**(민아는 눈치가 빠름.)

“이거, 수상한데. 뭐야? 과자야? 같이 먹자야. 친구 좋은 게 뭐니. 우린 같은 반에다, 합창도 같이 하잖아. 이게 보통 인연이야?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지. 가방 속에 콩콩 숨겨 두고 혼자 먹을 거야? 그럼 배탈 나. 안 그래? 지원아?”

어휴, 기집애. 뭐 이런 수다쟁이가 다 있나. 그 짧은 순간에 많이도 주워섬겼다. 민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의견을 묻자 지원이는 피식 웃었다.

“그, 그래, 같이 먹어야지.”

“맞지? 지원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보자, 뭔가. 되게 궁금해.”

민아는 물을 차고 날아오르는 제비보다도 빠른 속도로 내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재빠르게 가방을 여는 민아의 행동을 표현함.) 나는 **눈을 뜬 채로 코를 베인다**(눈을 멀정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 갈 만큼 세상인심이 고약하다.)는

게 꼭 이런 심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엥? 이게 뭐야? 이거 진짜야, 모조품이야?”

“진짜야.”

나는 얼른 가방을 벗어서 가슴에 안으며 지퍼를 닫았다. 민아가 가방을 뺏으려 대들며 물었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혹시, 조희대 옆에서 딴 거?”

가슴이 콧 찔렸다.(수박을 몰래 딴 일이 들통남.) 지원이도 똑같은 느낌이었나 보다. 입을 삐죽하며 나에게 두 손을 벌려 보였다. 말없이 선 지원이와 나를 번갈아 보며 민아가 말했다.

“맞구나. 대박! 야, 뭘 짓을 한 거니? 너희들 큰일 났다. 그거 **교장 쌤 수박**(수박 주인의 정체를 알게 됨.)이야.”
“뭐?”

두 사람 입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마 이때 지원이와 내 눈의 크기는 황소 눈만 했을 것이다.**(이러한 행동의 가담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몰랐어? 교장 쌤이 지극정성으로 가꾼다고 소문이 찐하잖아. 그거 모르는 애들 없는데, 이상하네. 너희들은 그걸 알고도 딴 거? **교장 쌤한테 뭐, 저항할 거 있삼?**(교장 선생님의 수박이라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수박을 딴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교장 쌤의 얼굴이 절로 떠오른다. 평소에도 눈꼬리가 위로 살짝 들려 있고, 눈꼬리를 따라서인지는 몰라도 입꼬리도 들려 있는 세모꼴 얼굴. 눈빛 하나만으로도 전교생을 침묵시킬 수 있는, 그 카리스마.]([]: 외모 묘사를 통해 교장 선생님이 위엄 있고 엄격한 인물임을 드러냄.) 지원이는 금세 울상이 되었다.

▶ 민아에게 수박 주인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것을 듣게 됨.

“어, 어떡하지?”

“뭘 어떡해. 빨리 돌려놔야지.”

민아가 시원시원하게 말했다.(생각이 많고 우유부단한 ‘나’와 달리 거침없는 민아의 성격이 드러남.) 무슨 말인지 감은 잡았으나, 나는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물었다.

“돌려놓다니?”

“수박을 있던 데 갖다 놓으라고.”

“딴 거를? **그건 양심을 속이는 일이잖아.**(잘못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수박을 몰래 딴 것을 감추려 하는 행동이므로.)”

“허허 참, 지금 양심 따지게 생겼니? 교장 쌤이 알면 너 감당할 수 있어?”

“.....”

나는 선뜻 대답을 못 했다.(교장 선생님께 사실을 고백할 용기는 없음.) 지원이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다정아, 민아 말대로 하자. 얼른 수박 갖다 놓자. 갖다 놓고 집에 가게. 응?”(지원이가 겁을 먹고 수박을 빨리 돌려놓기를 바람.)

지원이는 벌레 씹은 얼굴이 되어 있다. 조금 전 교실에서 나와 건물 계단을 내려올 때 즐거워하던 얼굴과는 전혀 딴판이다. 나는 망설여졌다. 이건 **작은 잘못**(수박을 딴 행동)에 대한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더 큰 잘못**(수박 주인을 알고도 제자리에 몰래 갖다 놓는 행동)을 저지르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력 접착제가 땅과 내 발바닥을 붙여 놓은 느낌이 들었다.**(수박을 가져다 놓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에 몸이 움직이지 않음.) 지원이와 민아가 나를 잡아당겼지만 내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 “지원아, **이건 아닌 거 같아.**(수박을 그냥 돌려놓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

▶ ‘나’는 수박을 돌려놓으라는 친구들의 제안이 양심에 걸려 망설임.

[“**뭐가, 아냐, 빨리 갖다 놓고 가자. 에이, 짜증 난다, 정말. 망할 수박.**”](‘인물의 대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말이 거칠어졌다. 얼굴도 많이 일그러졌다.]([]: 수박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나’가 반대해서 짜증스러움.)

“너 가기 싫으면 내가 할게. 가방 이리 줘. 어차피 내가 땀으니까, 내 거잖아.”

지원이가 가방을 잡고 뺏으려 들었다. 나는 가방을 강하게 잡았다.(지원이와 ‘나’의 갈등) 지원이보다는 내가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엄마와 지내던 연두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와 새 엄마, 동생 녹두와 살게 된다. 그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연두가 새엄마와 살게 된 사연) 고등학생이 된 연두는 고생하시는 엄마를 도우려고 집 근처 ‘이상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어릴 때 프랑스로 입양된 마농은 연두와 함께 카페에서 일하면서, 친엄마를 찾으려고 틈틈이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

[3. 연두네 집

연두의 목소리에 조명이 밝아진다.(새로운 장면이 시작됨. ‘조명 등을 활용하여 장면을 전환한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연두가 월급봉투와 엄마에게 드릴 선물을 들고 있다.(‘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말과 행동 등을 지시한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연두: 이거…… 받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오늘은 꼭 드려야 하는데.(월급과 선물을 드릴 기회를 몇 번 놓침.)

엄마가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면서 들어온다.(연두네 형편이 좋지 않음.)

엄마: 왔니?

연두: 네…….

엄마: 뭐 하고 다니느라 이렇게 늦어?(엄마는 연두가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모름.)

연두: 죄송합니다.

엄마: 그 죄송하단 말은 좀 안 할 수 없니?(그동안 연두가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 했음.)

연두: 네. 죄송…… 아, 네.

엄마: 밥은?

연두: 먹었어요.

엄마: 왜 그러고 섰어. 얼른 들어가서 쉬어.

연두: 네……. (들어가려다 용기를 내어) 엄마 이거……. (봉투(엄마를 생각하는 연두의 마음이 담긴 것)를 내민다.)

엄마: (봉투를 열어서 본다.) 이게 뭐니?

연두: 저, 한 달 전부터 여기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거든요.

엄마: 아르바이트?

연두: 네. 첫 월급 받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연두가 아르바이트를 한 까닭. 연두가 아르바이트를 한 까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에 보태 주세요.

엄마: (버럭 화를 내며) 누가 너한테 이런 거 해 달랬니?(고등학생인 딸이 생활비를 걱정하게 만든 것이 속상해서 화를 냄.)

연두: 아…….

엄마: 내가 너한테 돈 벌어 오라고 시키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연두: 엄마…….

엄마: 엄마? 네가 날 엄마라고 생각은 하니?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자신이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두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함.) 1([: 엄마와 연두의 외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녹두, 통화하며 들어온다.

중1-1
국어
천재(노)

2026 중1-1 국어 천재(노) | 4(1) 먹고 싶다, 수박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발단]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일어난 그 일**(____을 둘러싼 친구들 사이의____)은 마치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했다.]([]: ‘나’가 ____를 회상하고 있음. 이 부분에 담긴 의미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____스러웠음을 의미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나의 꿈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여유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게 문제**(사건이 일어난 ____ - 여유 시간에 돌아다니다 ____을 발견함)였다. 줄넘기 평가를 하는 날이었다.

“적당한 데서 연습하고들 있어. 부르면 쥘싸게 오고.”

노란 선글라스를 낀 체육 쌤의 말이었다. 아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세영, 지원, 은비, 인정, 영주와 함께 뭉쳐서 갔다. [우리는 **자타**(문맥에 맞는 다른 말로 바꾸는 문제로, ‘____’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가 공인하는 육인방이다. **콩 한 개도 여섯 쪽으로 나뉘서 먹을 수 있다고 서로 믿는 사이**(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____’(水魚之交)나 ‘____’(知己之友)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다.]([]: ‘나’가 생각하는 친구들의 관계)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리 잡은 곳이 초회대 위였다. 그곳은 시멘트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맨땅에서 줄을 넘는 것보다 나았다. 하지만 줄넘기는 뒷전이였다. 넘는 등 마는 등, 별 영양가 없는 수다로 시간을 보냈다. 체육 쌤이 본다면

“어휴, 저것들!”

하고 속을 박박 긁겠지만. 인정이는 아예 줄넘기를 저만치 집어 던지고, 바닥에 퍼질러 앉았고, 은비와 영주는 줄넘기 한 개로 서로 몸을 묶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세영이가 외쳤다.

▶ ‘나’와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____를 땔며 시간을 보냄.

“어머, 어머! 애들아, **저것**(____옆에 있는____) 좀 봐.”

눈들이 한꺼번에 세영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다.

“보여? 애들아, 보이지? 수박 말이야.”

진짜로 있었다. **수박이었다. 초회대 옆, 비탈진 잔디밭, 늙은 겹벚꽃 나무 아래, 수박이 있었다.**(앞으로의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인 ____의 등장) 단 한 개. 수박 포기도 딱 하나였다. 오리발처럼 갈라진 길쭉한 초록 이파리들은 그닥 싱싱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박은, 생각보다 컸다!

“와, 크다! 인정이 머리보다 크겠다.”

지원이가 인정이 머리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녹색 덩어리에 선명하게 죽죽 그어진 질푸른 선들. 수박은 툭툭해 보였다. 손가락으로 튕기면, 툭! 하고 소리를 낼 것 같다. 나는 수박을 손가락으로 튕겨 보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솟아나자, 참기 어려웠다.

▶ ‘나’와 친구들이 우연히 수박을 발견함.

“아, 저거 우리 따 먹으면 안 될까? 수박이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왜 그동안 못 봤을까?”(크고 싱싱한 수박을 보고 들뜸.)

[내가 이상한 흥분에 휩싸여 마구 말을 쏟아 내고 있을 때, **벌처럼 웅 하고**(지원이의 ____행동을 ____를 통해 드러냄. ‘**재빠르고 능숙하게 수박을 따는 행동을 ____하게 드러낸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박에게로 날아간 인간이 있었다. 지원이었다.

“먹고 싶으면 따지 뭐.”

지문 확인

[앞부분의 줄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엄마와 지내던 연두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와 새 엄마, 동생 녹두와 살게 된다. 그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연두가 _____와 살게 된 사연) 고등학생이 된 연두는 고생하시는 엄마를 도우려고 집 근처 '이상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어릴 때 프랑스로 입양된 마농은 연두와 함께 카페에서 일하면서, 친엄마를 찾으려고 틈틈이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

[3. 연두네 집

연두의 목소리에 조명이 밝아진다.(새로운 _____이 시작됨. '_____등을 활용하여 _____을 전환한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연두가 월급봉투와 엄마에게 드릴 선물을 들고 있다.('_____을 통해 인물의 _____과 _____등을 지시한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연두: 이거…… 받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오늘은 꼭 드려야 하는데.(_____과 _____을 드릴 기회를 몇 번 놓침.)

엄마가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면서 들어온다.(연두네 _____이 좋지 않음.)

엄마: 왔니?

연두: 네…….

엄마: 뭐 하고 다니느라 이렇게 늦어?(엄마는 연두가 _____하는 것을 모름.)

연두: 죄송합니다.

엄마: 그 죄송하단 말은 좀 안 할 수 없니?(그동안 연두가 _____하라는 말을 자주 했음.)

연두: 네. 죄송…… 아, 네.

엄마: 밥은?

연두: 먹었어요.

엄마: 왜 그러고 섰어. 얼른 들어가서 쉬어.

연두: 네……. (들어가려다 용기를 내어) 엄마 이거……. (봉투(_____를 생각하는 연두의 _____이 담긴 것)를 내민다.)

엄마: (봉투를 열어서 본다.) 이게 뭐니?

연두: 저, 한 달 전부터 여기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거든요.

엄마: 아르바이트?

연두: 네. 첫 월급 받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연두가 _____를 한 까닭. 연두가 아르바이트를 한 까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에 보태 주세요.

엄마: (버럭 화를 내며) 누가 너한테 이런 거 해 달랬니?(_____인 딸이 _____를 걱정하게 만든 것이 _____해서 화를 냄.)

연두: 아…….

엄마: 내가 너한테 돈 벌어 오라고 시키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연두: 엄마…….

엄마: 엄마? 네가 날 엄마라고 생각은 하니?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자신이 _____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두가 _____를 했다고 생각함.)]([]: 엄마와 연두의 _____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녹두, 통화하며 들어온다.

중1-1
국어
천재(노)

2026 중1-1 국어 천재(노) | 4(1) 먹고 싶다, 수박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먹고 싶다, 수박」 제재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성격	회상적 , 사실적
주제	수박 처리 를 둘러싼 친구들 사이의 갈등 과 깨달음
특징	① 인물의 심리 와 갈등 이 잘 드러남. ② 비유 를 활용해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③ 학생들의 행동과 말이 현실감 있게 드러남.

2. 주요 인물의 성격

지원	• 친구들이 말할 새도 없이 수박을 따 버림. • 수박을 돌려놓는 것을 ‘나’가 반대하자 짜증을 내며 말이 거칠어짐.	• 충동적임. • 성급함. • 감정적이고 욕하는 면이 있음.
은비	• 지원이가 수박을 같이 먹자고 말했지만 이를 거절함. • 수박 때문에 고민하는 ‘나’를 도와줌. • 문제 해결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함.	• 이성적임. • 단호함. •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음. • 시원시원함.
‘나(다정)’	• 지원이를 구출하고자 신발주머니에 수박을 숨김.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벌점을 받든 혼나든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음. • 잘못을 했으면 이를 밝히고 그에 따라오는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 의리 있음. • 배려심 있음. • 양심적임.

3. 소설 속 갈등의 양상

- **외적** 갈등 ①

지원, 인정, 세영
화장실에 가서 친구들끼리 수박을 나눠 먹으려 함.
↓
‘나(다정)’
담임 선생님께 말해 반 아이들 과 수박을 나눠 먹으려 함.

- **외적** 갈등 ②

지원
교장 선생님의 수박을 원래 있던 자리 에 돌려놓자고 함.
↓
‘나(다정)’
양심을 속이는 일 이라고 생각해 수박을 제자리 에 돌려놓는 것을 망설임.

- ‘나(다정)’의 **내적** 갈등 ①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박을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자는 ‘나’의 제안을 친구들이 극구 반대함. • ‘나’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친구들이 답답함.
↓
은비처럼 수박 처리 문제 에서 빠질지 말지를 고민함.

TEST 1단계

1. 「먹고 싶다, 수박」 제재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장 소설
성격	□상적, 사□적
주제	수□ 처□를 둘러싼 친구들 사이의 갈□과 깨□음
특징	① 인물의 □리와 □등이 잘 드러남. ② □유를 활용해 장면을 생□감 있게 표현함. ③ 학생들의 행동과 말이 현□감 있게 드러남.

2. 주요 인물의 성격

지원	- 친구들이 말릴 새도 없이 수박을 따 버림. - 수박을 돌려놓는 것을 ‘나’가 반대하자 짜증을 내며 말이 거칠어짐.	□동적임. - 성□함. - 감□적이고 욕하는 면이 있음.
은비	- 지원이가 수박을 같이 먹자고 말했지만 이를 거절함. - 수박 때문에 고민하는 ‘나’를 도와줌. - 문제 해결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함.	- 이□적임. - 단□함. - 친구의 어려움을 외□하지 않음. - 시원시원함.
‘나(다정)’	- 지원을 구출하고자 신발주머니에 수박을 숨김.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벌점을 받은 혼나든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음. - 잘못을 했으면 이를 밝히고 그에 따라오는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 의□ 있음. - 배□심 있음. - 양□적임.

3. 소설 속 갈등의 양상

- □적 갈등 ①

지원, 인정, 세영
화장실에 가서 □구들끼리 수박을 나눠 먹으려 함.



‘나(다정)’
담임 선생님께 말해 □ 아이들과 수박을 나눠 먹으려 함.

- □적 갈등 ②

지원
교장 선생님의 수박을 □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자고 함.



‘나(다정)’
□심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해 수박을 □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망설임.

- ‘나(다정)’의 □적 갈등 ①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박을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자는 ‘나’의 제안을 친구들이 극구 □대함. ‘나’는 □몫을 뉘우치지 않는 친구들이 □답함.
--



은비처럼 수□ □리 문□에서 빠질지 말지를 고민함.

TEST 2단계

1. 「먹고 싶다, 수박」 제재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소설
성격	적, 적
주제	를 둘러싼 친구들 사이의 과
특징	① 인물의 와 이 잘 드러남. ② 를 활용해 장면을 있게 표현함. ③ 학생들의 행동과 말이 있게 드러남.

2. 주요 인물의 성격

지원	- 친구들이 말릴 새도 없이 수박을 따 버림. - 수박을 돌려놓는 것을 ‘나’가 반대하자 짜증을 내며 말이 거칠어짐.	임. 함. 이고 욕하는 면이 있음.
은비	- 지원이가 수박을 같이 먹자고 말했지만 이를 거절함. - 수박 때문에 고민하는 ‘나’를 도와줌. - 문제 해결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함.	임. 함. - 친구의 어려움을 하지 않음. - 시원시원함.
‘나(다정)’	- 지원을 구출하고자 신발주머니에 수박을 숨김.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벌점을 받은 혼나든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음. - 잘못을 했으면 이를 밝히고 그에 따라오는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있음. 있음. 임.

3. 소설 속 갈등의 양상

- 갈등 ①

지원, 인정, 세영
화장실에 가서 수박을 나눠 먹으려 함.

↓
‘나(다정)’
담임 선생님께 말해 과 수박을 나눠 먹으려 함.

- 갈등 ②

지원
교장 선생님의 수박을 에 돌려놓자고 함.

↓
‘나(다정)’
 이라고 생각해 수박을 에 돌려놓는 것을 망설임.

- ‘나(다정)’의 갈등 ①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박을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자는 ‘나’의 제안을 친구들이 극구 함.
• ‘나’는 을 뉘우치지 않는 친구들이 함.

↓
은비처럼 에서 빠질지 말지를 고민함.

TEST 3단계

1. 「먹고 싶다, 수박」 제재 개관

갈래	단편 소설, □□ 소설
성격	□□적, □□적
주제	□□ □□를 둘러싼 친구들 사이의 □□ 과 □□□
특징	① 인물의 □□와 □□이 잘 드러남. ② □□를 활용해 장면을 □□□ 있게 표현함. ③ 학생들의 행동과 말이 □□□ 있게 드러남.

2. 주요 인물의 성격

지원	- 친구들이 말릴 새도 없이 수박을 따 버림. - 수박을 돌려놓는 것을 ‘나’가 반대하자 짜증을 내며 말이 거칠어짐.	□□□임. □□함. □□□이고 욕하는 면이 있음.
은비	- 지원이가 수박을 같이 먹자고 말했지만 이를 거절함. - 수박 때문에 고민하는 ‘나’를 도와줌. - 문제 해결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함.	□□□임. □□함. - 친구의 어려움을 □□하지 않음. - 시원시원함.
‘나(다정)’	- 지원을 구출하고자 신발주머니에 수박을 숨김.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벌점을 받든 혼나든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음. - 잘못을 했으면 이를 밝히고 그에 따라오는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 있음. □□□ 있음. □□□임.

3. 소설 속 갈등의 양상

- □□ 갈등 ①

지원, 인정, 세영
화장실에 가서 □□□□ 수박을 나눠 먹으려 함.
↓
‘나(다정)’
담임 선생님께 말해 □ □□□과 수박을 나눠 먹으려 함.

- □□ 갈등 ②

지원
교장 선생님의 수박을 □□ □□ □□에 돌려놓자고 함.
↓
‘나(다정)’
□□□ □□□ □이라고 생각해 수박을 □□□에 돌려놓는 것을 망설임.

- ‘나(다정)’의 □□ 갈등 ①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박을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자는 ‘나’의 제안을 친구들이 극구 □□함. ‘나’는 □□을 뉘우치지 않는 친구들이 □□함.
↓
은비처럼 □□ □□ □□에서 빠질지 말지를 고민함.

TEST 4단계

1. 「먹고 싶다, 수박」 제재 개관

갈래	단편 소설, ____ 소설
성격	____적, ____적
주제	____를 둘러싼 친구들 사이의 ____과 ____
특징	① 인물의 ____와 ____이 잘 드러남. ② ____를 활용해 장면을 ____ 있게 표현함. ③ 학생들의 행동과 말이 ____ 있게 드러남.

2. 주요 인물의 성격

지원	• 친구들이 말릴 새도 없이 수박을 따 버림. • 수박을 돌려놓는 것을 ‘나’가 반대하자 짜증을 내며 말이 거칠어짐.	• ____임. • ____함. • ____이고 욕하는 면이 있음.
은비	• 지원이가 수박을 같이 먹자고 말했지만 이를 거절함. • 수박 때문에 고민하는 ‘나’를 도와줌. • 문제 해결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함.	• ____임. • ____함. • 친구의 어려움을 ____하지 않음. • 시원시원함.
‘나(다정)’	• 지원이를 구출하고자 신발주머니에 수박을 숨김.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벌점을 받든 혼나든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음. • 잘못을 했으면 이를 밝히고 그에 따라오는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 ____있음. • ____있음. • ____임.

3. 소설 속 갈등의 양상

- ____ 갈등 ①

지원, 인정, 세영
화장실에 가서 ____ 수박을 나눠 먹으려 함.



‘나(다정)’
담임 선생님께 말해 ____과 수박을 나눠 먹으려 함.

- ____ 갈등 ②

지원
교장 선생님의 수박을 ____에 돌려놓자고 함.



‘나(다정)’
____이라고 생각해 수박을 ____에 돌려놓는 것을 망설임.

- ‘나(다정)’의 ____ 갈등 ①

•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박을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자는 ‘나’의 제안을 친구들이 극구 ____함. • ‘나’는 ____을 뉘우치지 않는 친구들이 ____함.
--



은비처럼 ____에서 빠질지 말지를 고민함.

O / X 문제

【1~8】 「먹고 싶다, 수박」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이 작품은 ‘나’의 과거 회상으로 시작한다.
..... (O / X)

2. 지원이는 친구들이 시켜서 조희대 옆의 수박을 땀다. (O / X)

3.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O / X)

4. 신발주머니를 가져온 ‘나’의 행동에서 ‘나’의 의리 있는 성격이 드러난다. (O / X)

5. ‘나’는 문제에서 빠진 은비에게 질투심을 느꼈다.
..... (O / X)

6. 작품에는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모두 등장한다. (O / X)

7. “은비의 손이 따듯했을 뿐이었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O / X)

8. 이 작품은 비유를 활용해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O / X)

【9~10】 「내일은 내일에게」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9. 엄마는 연두가 생활비에 보태 달라고 돈을 내밀었을 때 비참함을 느꼈다. (O / X)

10. 엄마와 연두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 엄마와 녹두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O / X)

1. O 2. X 3. O 4. O 5. X 6. O 7. X 8. O
9. O 10. X

중1-1
국어
천재(노)

2026 중1-1 국어 천재(노) | 4(1) 먹고 싶다, 수박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일어난 그 일은 마치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했다. 체육 시간에 여유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게 문제였다. 줄넘기 평가를 하는 날이었다.

“적당한 데서 연습하고들 있어. 부르면 짹싸게 오고.”

노란 선글라스를 낀 체육 쌤의 말이었다. 아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세영, 지원, 은비, 인정, 영주와 함께 뭉쳐서 갔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육인방이다. 콩 한 개도 여섯 쪽으로 나눠서 먹을 수 있다고 서로 믿는 사이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리 잡은 곳이 조희대 위였다. 그곳은 시멘트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맨땅에서 줄을 넘는 것보다 나았다. 하지만 줄넘기는 뒤틀거였다. 넘는 둥 마는 둥, 별 영양가 없는 수다로 시간을 보냈다. 체육 쌤이 본다면

“어휴, 저것들!”

하고 속을 박박 긁겠지만. 인정이네 아예 줄넘기를 저만치 집어 던지고, 바닥에 퍼질러 앉았고, 은비와 영주는 줄넘기 한 개로 서로 몸을 묶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세영이가 외쳤다.

“어머, 어머! 애들아, 저것 좀 봐.”

눈들이 한꺼번에 세영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다.

“보여? 애들아, 보이지? 수박 말이야.”

진짜로 있었다. 수박이었다. 조희대 옆, 비탈진 잔디밭, 늙은 겹벚꽃 나무 아래, 수박이 있었다. 단 한 개. 수박 포기도 딱 하나였다. 오리발처럼 갈라진 길쭉한 초록 이파리들은 그닥 싱싱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박은, 생각보다 컸다!

“와, 크다! 인정이 머리보다 크겠다.”

지원이가 인정이 머리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녹색 덩어리에 선명하게 죽죽 그어진 질푸른 선들. 수박은 튼튼해 보였다. 손가락으로 튕기면, 퐁! 하고 소리를 낼 것 같다. 나는 수박을 손가락으로 튕겨 보고 싶은 마음